

# 99학년도 입시, 인문·자연계열 교차지원 가능

## 학과선택기회 폭 넓혀... 입학원서 전자접수 실시

구분	특 차	정 시	
		서울캠프	경주캠프
원서 접수	98.12.20(일) ~ 12.22(화)	98.12.28(일) ~ 12.30(수)	98.12.28(일) ~ 12.31(목)
합격자 발표	98.12.27(일)	99.2.1(월)	99.2.1(월)

99학년도 입시전형일정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인문·자연계열의 교차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지난해 국내 대학최초로 시행한 '지역방문 입시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희망자에 따라 입학원서를 전자접수한다는 점이다.

인문·자연계열 교차지원의 경우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학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우수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지역방문

입시전형은 지방의 수험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는 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점과 경비부담의 이유로 시행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입학과 운동규 계장은 "타대학과 함께 지역방문 입시전형을 치른다면 경비절감과 더불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방문 입시전형 제도를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입학원서 전자접수는 서울캠프의 경우 한국

전력공사 주관으로 9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해당 협력 고등학교에서 직접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 삼성SDS 주관으로 치러지는 경주캠프의 경우 98년도 2월 졸업자 및 9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가 가능하며, 수험생은 전국 한일은행 및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OMR카드 대신 전자접수용 입학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캠프는 '나' 군, 경주캠프는 '라' 군의 입시전형을 치르며 자세한 입시일정은 왼쪽 표와 같다.



'끼' 자랑... 지난 4일 치러진 '캠퍼스영성가요 동국대편' 녹화중 장기자랑에 참가한 학생들이 끼를 발산하고 있다. 남대철 기자

### 보리소

#### 코삼비의 재가불자들

윤청광(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이 코삼비에 계시 때의 일이었다. 어떤 비구가 자기 생각에는 계를 범한 것이 아닌데, 다른 비구들은 '너는 계를 범했으니 법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계를 범하지 않았다." "너는 계를 범했다!" 이렇게 계를 범하지 않았다는 한 비구와 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비구들 간에 시비가 벌어졌고, 결국은 여러 비구들에 의해 한 비구가 대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한 그 비구는 다른 비구들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호소를 들은 다른 비구들은 한 비구를 쫓아낸 여러 비구들을 찾아가 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마침내 교단의 화합을 깨는구나' 한탄하시고 한 비구를 쫓아낸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른 비구의 허물을 눈앞의 것만을 보고 그를 미워한 끝에 쫓아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쫓겨난 한 비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으니 참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실사 허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한사람의 일로 교단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대중의 화합이 깨트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대중의 결정된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 부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더이상 싸우지 말고 화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양측 비구들이 계속 다투자 부처님은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결모양에만 마음을 팔고 있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한탄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코삼비를 떠나고 말았다.

이때 코삼비의 재가불자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모임을 열고,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한채 싸움질을 계속하고 있는 코삼비의 모든 비구들에게는 음식공양도 올리지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알은 체도 하지 말자고 결의하였다. 음식공양마저 받지 못하게 된 여러 비구들은 그제서야 부처님을 찾아가 싸움을 끝내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2천5백여년이 흐른 오늘 우리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총무원장을 세 번째 하겠다는 한 스님과 3선은 안된다는 여러 스님들간에 치열한 시비가 일고 있다. 한국의 2천만불자들도 저 옛날 코삼비의 재가불자들처럼 공양도 올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알은 체도 말자고 비장한 결의라도 해야할까보다.

### 총장선임 관련 공개토론회

## 학내주체 입장 재확인·공동연대 모색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주최로 지난 5일 서울캠프 90주년기념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선임 결정에 대한 공개 토론회' 자리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학내주체들의 '총장낙점 전면철회'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책을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일정

로 참여했으며 1백여명의 교수·학생·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서울캠 2편 송재운 법인사무처장은 여전히 총장낙점은 번복될 수 없음을 강조했으며 패널들은 법인의 총장낙점이 비록 합법적이기는 하나 학내주체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비민주적 처사라는 근거를 들어 총장낙점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은 "총장낙점 전면무효화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뒤 "기득권 확보를 위해 문제의 핵심을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 총장선출방식을 둘러싸고 주체간 접어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박정진 대

학원총학생회장은 재단결정 무효화를 위해 주체간 공동연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의연 교수는 "교수회만의 총장선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대한의 유권 해석을 통한 제주체 참여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혀 일단의 교수회측의 한발 물러섬으로 주체간 공동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토론회 자리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결정보다는 주체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교수회만의 총장직선제 문제가 새롭게 논의돼야 함을 부각시켜 학내 4주체간 공동연대의 가능성을 밝게 한 것만으로 그 성과가 크다 하겠다.

김미경 기자

## 한·일 불교계 총장회의 개최

### 2천년부터 한·일 불교대 총장회의 매년 마련키로

제1회 한·일불교철학계 총장회의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동안 서울캠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본교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한국의 4개 불교종단대학 총장(중앙승가대=방지하 스님, 원광대=송천은 총장, 위덕대=순재서 총장)과 70여개 대학으로 구성된 '일본 불교철학계 대학총장회의'의 8개 간사교(대표간사교 류교쿠대학=기타바타게 텐세이 총장, 고마자와대학=아메미야 마사야 총장, 다이쇼오 대학=무라나가유유쇼 총장, 니쇼대학=키타카와 덴조 부총장, 붓고대학=타카하시 코오시 총장, 오모타니 대학=쿠르베 테루오 총장)총장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본교 송석구 총장은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불교계대학 총장의 협업체를 공식기구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측은 이를 받아들여 공식기구화를 위한

'한·일 불교계 대학총장회의 발족준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같은 결정 뒤에 양국은 공식적으로 제1회 '한·일 불교대학 총장회의'를 2000년에 일본에서, 제 2회 대회를 2001년 한국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대회가 열리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학술회의를 통하여 한·일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는 이 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되었다.

세계 각국의 21세기 대응방안이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가 주도한 한·일 양국의 불교계대학 총장의 협업체를 공식기구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측은 이를 받아들여 공식기구화를 위한

## 노조, 학교당국 통해 총추위 추진

### 교수회,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조직적 대응

재단의 총장 선임결정 무효화를 위해 학내 각 주체들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직원노조(위원장=백경선)는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총장추천위원회 추진을 학교당국과 재단을 통해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주간 치러진 전체 직원 본임토론회 결과와 그동안 교수회와 접촉 속에서 한계를 느낀 노조측의 결정이다.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수회의 교수직선제와는 달리 총장선거에 있어 학내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다. 노조의 이와 같은 방침은 오늘(9일) 확대간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며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 재정확보 문제, 구조조정, 교육개혁 등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앞으로 교수회에 연연해서 노조가 흔들리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는 지난 3일 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김홍철·

생명자원경제학)를 구성했다. 60대 전후의 원로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앞으로 교수회의 대처방안과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자문위원회에 더 많은 교수들이 참여할 전망이어서 총장연임결정 무효화 투쟁에 좀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차 특별자문위원회는 "총장선출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도덕적으로 치러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사법고시 2차 4명 합격

제40회 사법고시 2차시험에 본교생 4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수철(법학94졸) △오법석(무역96졸) △김성규(공법박사과정) △이준근(법3). 한편, 제42회 행정고시 2차시험에 황범승(행정97졸), 장금용(경영3)군이 합격했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 서울캠 총학, 김호중·성나현조 단독출마

### 경주캠 총학후보 등록 내일(10일)까지... 투표 26일

99학년도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서울캠 제31대 총학생회 후보로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조가 단독 출마한 것을 비롯해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경상대, 사회과학대, 생명자원과학대, 사법대, 야간강좌, 예술대 등 총3개 중앙기구, 6개 단과대에 후보자들이 모두 단독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는 오는 9일부터 23

일까지 유세 및 공청회를 치른 뒤 24일부터 26일까지 투표가 이뤄진다. ▶관련기사 서울캠 2편 경주캠의 경우 현재 자연대, 야간강좌 학생회 후보가 단독 입후보 했으며 상경대, 동연은 각각 두팀이 출마했다.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4일부터 내일(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투표는 오는 26일 치러진다. ▶관련기사 경주캠 2편

### 고수동정

▲김정매(영문학)=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미국아메리카학회에 참석

## 서울캠, 지난 3일 전면휴업 결의대회

### 집회 후 총장실점거...이사장 면담요구

지난 3일 서울캠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는 '일일삼천 전면휴업 결의대회'를 갖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총장재선임과 이월적립금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법과대, 이과대를 제외한 9개 단과대와 동아리연합회 등 총 8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억 비자금 조

성과정 공개 △재단의 일방적 총장낙점 무효 △학내제주체가 참여하는 총장선출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진행됐다. 집회가 마무리된 후 학생들은 이사장 면담과 이월적립금 조성과정 공개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교직원들과의 1시간에 걸친 치열한 몸싸움 끝에 학생들은 4시40분경 점거를 성공하고 총장실에 3

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 정 정

제1257호 '99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확정' 기사 (표)의 관련문화화를 윤리문화학으로 바로잡습니다.

## 동대 학술상·문학상을 모집합니다

### 당당하게 도전하십시오

젊음·가능성·열정과 패기를 가진 여러분, 동대 학술상·문학상 작품모집에 초대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제36회 동대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 응용모형: 3개 분야 모두 2씩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인문과학상: 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3회 동대 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시부문: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편씩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2편씩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시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 재단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선임에 대한 공개토론회 지상중계

#### 민주적·합법적 결정이다



송재운 법인사무처장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의 마지막 희망이다. 스님과 사원은 전통적으로 민주적 집합체이며 종단의 선거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 학교당국과 논의공간 마련돼야



이미성 부총학생회장

학교당국의 논리는 송총장이 반드시 재임돼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학교당국과 재단의 논리는 공색한 변명엔 지나지 않는다. 기존 제도의 한계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학내구성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질의·응답

Q 송총장 임기를 4개월 남겨둔채 치러진 것에 대해 그동안 재단측은 임기 말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재단의 일방적 낙임으로 인해 더욱더 학내 상황이 혼란스러워졌는데...

박정진 대학원 총학생회장

A 이번 결정은 사법교육법·정관에 의한 것으로 차기 총장을 언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관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시기 선택문제에는 이사회의 임의적 결정사항일 뿐이다.

인맥·파벌조정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교수직선제는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선거분위기가 열리기 전에 치러진 것이다.

송재운 법인사무처장

### 인증유골

- 1. "역사의 종말은 민주주의" → 인류 최고의 가치이자 종착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이에 동양에서 역시 '민주'를 추구해야 한다고.
2. "이번 결정은 1/50에 의한 결정" → 재단, 학교, 교수, 직원, 학생 중 주체의견은 무시되고 재단에 의해서만 행해

#### 생협, 소비생활 여론조사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오늘(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주일동안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조합원의 소비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본교를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생협이 설립된 6개 대학과 국민대, 건국대 등 생활협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등 총 11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의 소비의식'과 '생협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변화하는 학생의 소비의식과 생활 형태 및 생협의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생협의 모든 활동의 발전과 학생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문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 정 정

제1257호 2면 '이월적립금 해부' 기사중 <표>에서 장학기금을 1,330(단위: 백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 인물 아닌 선출방식의 문제



백경선 노조 위원장

직원의 위상과 역할, 위치 때문에 행동은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직원노조의 모습이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것은 재단 총장 낙임 철회이다. 민주와 합법을 떠나 일반정서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송총장 인물이 아닌 선출방식의 문제이다. 또한 교수직선제를 반대하며, 학내 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는 총장이 행정력과 추진력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교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총장은 교수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교수의 영역은 인정돼야 한다.

#### 송총장업적 재평가 필요



백정진 대학원총학생회장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불법이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주가 문제이며 이는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이 송석구 총장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불법이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주가 문제이며 이는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이 송석구 총장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교수회 조의연 교수

A 오비타격으로 그날 오전 이사장님이 급한 용무가 생겨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후초도 유덕기 교수회장과 교수회에 대해 불성실한 것은 아니었다. 안전으로 상정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총장선출이라는 언급은 아니었으나 '학교의 장 임명'이 안전으로 상정돼 있었다.

송재운 법인사무처장

실제로 교육개혁 3년연속 우수대학 선정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으며 끊임없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송총장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재선출 과정에서 재평가 되어야 한다. 결국 문제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총장이 힘을 가지고 동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의 주장이 철회돼야 하고 학내구성원의 생산적인 토론을 거쳐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이 선출돼야 한다.

#### 학내제주체 참여 고민할터



교수회 조의연 교수

재단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선거를 치렀다 하더라도 역사에 비춰 볼 때 재단이 내세우는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총장선임이 임기만료 4개월 전에 이뤄진 바는 없었으며 총장선출이 인사사회의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채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

합리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뤄야 교육과 연구가 수행된다. 학내 주체가 철회의 요구를 하는 것은 재단결정이 의견수렴이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회는 교수직선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유권해석을 통해 학내 제주체들의 총장선출 참여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해보겠다.

정리=취재부

Q 현 송총장에게 차기 총장선거에 정식 출마자격을 주는 것은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비취보았을 때 맞지 않는다. 그리고 완벽한 민주주의가 없듯 차기총장선출에 있어 지분을 교수 80%, 직원 10%, 학생 10%라는 비율로 나눠 치른다는 것은 무척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

김정구 교수

A 모든 대안은 합리적이여야 한다. 현 송총장이 출마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송총장에 대한 평가는 총장후보심사과정에서 이뤄져도 충분하다. 또한 지분을 나눈다는 것은 학내 제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상징적인 비율뿐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백경선 노조위원장

- 3. "매듭은 풀려야 되고, 물결은 트여야 합니다." → 정작 매듭을 풀어야 할 주체는 재단인데, 밤을 새워 고민하고 있는 주체는 교수·학생·직원이니 이거 윈.
4. "동국대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 주체별 지분배분 발언이 나오자 동국대학교의 지분은 엄연히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주장.
5. "10년 앞을 내다봅시다" → 학내 혼란에 따른 동국발전 저해를 우려. "빨리 매듭지어지길..."

#### 윤관기씨, 기술보증신용 이사장상 수여

창업경진대회 서울예선에서 3위를 차지한 윤관기(전자공학 박사과정)씨가 지난 2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전국 창업경진대회에서 기술보증신용 이사장상을 받았다. 윤관기씨의 Re4F팀은 컨버터·인버터용 변압기의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제작해 성능은 향상시키고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실시

학생생활연구소(소장=고진호·교육학)는 오는 10일 취업대비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졸업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적성검사는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4학년은 각급 과대표에게 1, 2, 3학년은 졸업준비위원회로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리쿠르트 직무 적성 검사지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의 검사료는 3천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학생 생활 연구소가 부담한다.

#### 주소지 확인 정정신고 ... 오는 11일부터 교과과에서

교무처 학적과(과장=오종호)에서는 학교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주소지 오류로 인해 반송돼 오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잦아지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 및 정정신고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

주소지가 변경된 학생들은 소속대학 교과과에서 오는 20일까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신방과 학술제 내일(10일)부터

제2회 신문방송학과 학술제가 내일(10일)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열린다. 영상제와 세미나,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는 이번 학술제는 동국관 앞 통일광장, 90주년기념 문화관 세미나실 등에서 진행된다.

#### 막오른 99학생회 선거

## 단과대 선거 오는 24일부터

### 후보 미등록 단위 선거 3월로 미뤄져

99학년도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4개 중앙기구 및 6개 단과대 학생회 후보와 선거 구호는 다음과 같다.

△제31대 총학생회 김호중(불교4)·성나현(응생3)조=시대전환! 가치창조! 새천년을 움직이는 청년의 합성. △제31대 총대의원회 최진범(영문4)군=동약의 2백40 대의 원이며! 혼란과 불신을 딛고 93년 성상 민족동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제11대 졸업준비위원회 노승수(화공4)군=정보 인 프라 구축, 자신있는 사회진출. △제15대 동아리연합회 박종근(민중사망)·김경원(동국문학회)조=동원의 울바른 자라찾기·학관복지와 자치를 위한 든든한 어깨동무·신자유주의대학 그 비밀 캐내기. △경상대 채진석(경제통상2)·장덕선(경영2)조=찾아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양심! 1천2백이 만들어가는 학생회. △제12대 사회과학

대 이정진(행정2)·장원석(행정3)조=대안 없는 학부제 반대·전면적 교육환경 개선·교육의 공공성 쟁취!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의식 대전환·기반적인 실행대책 반대! △제31대 생명자원과학대 김동석(생명자원과학부3)군=새천년을 향한 힘찬 도약! 5백 생자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31대 사법대 김희정(국교3)·정은영(수교3)조=세기말 새천년의 희망 천백학원! 너와 나의 의지모아 희망의 새천년을 달려나가자! △제15대 야간간좌 이영수(전산통계3)·이승복(반도체2)조=참여와 신뢰의 미래 공동체 △제12대 예술대 이재연(미술2)양=4백의 희망만들기.

한편, 총여학생회와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공과대, 정보산업과학대 학생회 선거는 후보자가 입후보 하지 않아 내년 3월로 미뤄지게 됐다.

## “이월적립금 투명성 의심스럽다”

### 학생회측 의문제기...향후 투자방안 공개요구

본지 11월 2일자(제 1257호) '이월적립금' 관련기사 중 학교측이 밝힌 이월적립금 내역에 대해 학부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와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정진·정치학 박사과정 3학기)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회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결산서에서는 이월적립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것 △지난 호 신문에 실린 학교기금적립현황 <표>에서는 이월적립금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학교비교 명시된 해외연수, 학술연구, 장학기금, 퇴직기금, 복지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을 재단 전입금을 적립한 것이라고 해도 매년 본교에 1백억원 씩 들어오는 전입금이 5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여져 왔다는 것에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그

동안 학교에 투자되었던 돈의 출처는 등록금이 아니냐는 것 등이 주를 이룬다.

또한 △건축기금 2백46억원 중 정보매체 센터와 탐미기관의 공사 미납금 1백40억원을 제외한 금액과 발전기금 77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과연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재 약정된 3백50억원의 발전기금이 있기는 하나 단순히 약정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해 재정확보방안의 불분명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학교회측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결산서와 똑같은 관·항·목으로 된 상세결산서를 보여달라는 것 △제 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비용의 재정확보방안 공개 △학교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학교에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지 앞으로의 투자방안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전면휴업결의대회 후 학생들은 '이월적립금 내역 공개와 재단총장직 점무효'를 외치며 총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2백여명의 학생들이 총장실에 모인 가운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남대철 기자

#### 민주를 위해...

- 겨울 계절학기 수업
1. 개설대상 교과목 : 98학년도 1, 2학기 개설 교과목 및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2. 수업일정
가. 98. 12. 21(월) ~ 99. 1. 12(화) - 16일간
나. 월~금요일 수업을 실시(공휴일 제외). 단, '98. 1. 9(토)은 수업을 실시함.
3.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7명 이상 : 전공교과목 나. 10명 이상 : 기타 모든 교과목.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98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서,
(1) 조기졸업 희망자. (2) 재수강자.
(3)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학점교류 희망자.
(4) 일반선택 희망자. (5) 편입학자.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징계와는 무관함.
나. 4학년 전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교양 및 1,2,3학년 전공)을 상대 평가함.
다. 「F」(과락) 성적에 대하여 성적증명서에 등재함.
라. 재수강시 선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자동취소됨에 유의.
마. 1998년 2월 졸업예정자중 학점미달자가 수강하여 학점취득시 2학기 졸업사정에 반영됨.
6.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기간 : 98. 11. 11(수) ~ 11. 13(금) - 3일간.
나.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서울캠퍼스 : 교무처 교무과(이부대학생은 이부대학 교학과로 신청).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과.
다. 제출서류
(1) 계절학기 수업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2) 사진 1매(4cm×5cm)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으로 수강신청서 부착용.
라. 수강료
(1) 개설 교과목 1학점당 ₩75,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비부담.
7. 개설대상 교과목 확정발표 : 98. 11. 18(수)
8. 수강신청 정정기간 : 98. 11. 19(목) ~ 11. 20(금) - 2일간.
\* 최초 수강신청자 중 폐강, 시간충복의 사유에는 정정불가.
9. 수업시간표 발표 : 98. 11. 24(화) 예정.

#### 교무처장

### 이전부터

#### 취업자주

O...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제자들이 취업난에 시달려도 교수님들은 냉담하기만 하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현재 교수 제자 1인 1취업 운동은 보이고 있는데 3백여명의 교수님들중 33분만이 신청을 하셨다는 것.

더구나 이 운동을 통해 취업이 된 졸업생은 단 두명 뿐이라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학생들은 학원 자주들, 교수님들은 취업 자주를 외친다."

#### 3S정책

O...총장재선임을 반대하는 학내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여러가지 행사와 맞아 떨어져 학생들의 조직화를 유린시키려는 학교측의 3S정책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Screen정책, '캠퍼스 영성가요' 촬영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Sports정책, '동국야구 발전을 위한 울스타 전'으로 영성가요에 관심없는 학생들은 대운동장으로 이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학생 왈, "동국대의 마지막 Sex정책 = 두가지 모두 관심없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 구성원의 아우성을 보게한다"

#### 심투

O...“동약, 무장군인 침투 성공!”

지난 6일 밤 완전 무장한 군인 6명이 학내에 소리없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곳곳에 붙여있는 대자보의 내용을 메모한 후 무선으로 어디까지 타전했다고.

"민주주의 죽음"이라는 뒤송한 상황에서 이들 6명의 등장은 왠지 불안한 예감을 주니,

이에 학교를 걱정하는 학 학우 왈, "동약은 내가 지킨다!"

#### 나도 홈리스!

O...분리수거! 분리배치? 동약의 곳곳에는 분리수거라는 이름하에 쓰레기통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지만 막상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찾으면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쓰레기통이 많다고.

이름하여 일반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우리 학교 일반 쓰레기기도 홈리스(Homeless)?"

### 동계 사회교육실습

98학년도 동계 사회교육실습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 1. 신청자격 :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3학년 재학생
2. 접수기간 : 98. 11. 10(화) ~ 11. 13(금)
3. 접 수 처 : 사범대 교학과(신청서 사범대 교학과 비치)
4. 실습기간 : 겨울방학중 4주간

#### 사범대학장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9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 1. 대 상 자 : 9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자 격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사범계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 이수자
다. 비사범계
(1)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2)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 이수자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B+)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98. 11. 10(화) ~ 11. 13(금)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 부 및 접수처 : 사범대 교학과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졸업후 3년이 경과하면 무시험검정 자격이 소멸하오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범대학장

###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논단

## 교원임면권 조정 등 내재적 통제 기능 활성화해야

최근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장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비리·부패·불법행위와 심지어 학교 내 용공 음모 조작행위 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도되고, 널리 알려짐에 따라 실랑과 우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전국 사립대학 교수 연합회(사교련)를 위시하여 시민 단체들이 간곡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와 정당들이 이의 원천적 해결방안으로서 현행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의면하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런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약 75%, 중등교육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지금 큰 시련에 봉착해 있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인 교육시장의 개방, 초대형투자, 도덕윤리와 창의력의 개발, 다양한 가치와 참여욕구, 대학 교과과정, 연구, 정보등의 세계 네트워크에 부응하기 위한 급격한 사고의 전환과 변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지난 90년 3월 16일 제 1백48회 임시국회에서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으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과도한 집권과 자의성을 허용하였고, 대학총장과 중·고등학교장에 대하여는 학교

운영 및 인사에 관하여 오직 재정권만을 부여함으로써 법인 이사장의 눈치만 보는 존재로 전락토록했던 것이다.

이렇게 재단의 전환에 큰 일조를 하고 있는 90년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98년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교육부 장관의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개정 방안에서도 교원 임면권을 재단 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이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의 독단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조항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방안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지이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위원회가 제안한 '대학평의회' 설치운영-현재 교육부가 제안한 대학평의원은 15-3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학교법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1/4, 당해 학교 총학장이 추천하는 자 1/4, 대학 내 학사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가 추천하는 자 1/4, 기타 동창회 교직원단체, 학생회, 학부모회 등이 추천하는 자, 시도지사 및 산업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타 동창회, 교직원 단체, 학생회, 학부모회 등이 추천하는 자, 시도지사 및 산업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제외한 3/4인 법인 이사회의 영향권 내에 들어있기에 대학평의원의 구성은 또 다른 법인 이사장의 어

용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학평의원의 구성과 권한은 사교련에서 제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조항 제26-2(대학평의원은 평교수회, 직원, 졸업생 추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교수회 추천자가 대학 평의원 총수에 2/3이상 이 되게 한다)의 내용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평의회 위원은 대학내 제주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학에 공헌한 사람이나 법률자문가, 공인회계사 등 2, 3명정도의 학외인사를 대학 평의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사회구성 개방'은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학사 심의기구 법정화'는 찬성하나 학사심의기구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어용기구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므로 큰 실효가 없을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법 개정자문 위원회가 제안한 '교원임면권 조정'을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총학장으로 이양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총장의 독성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분권화에 따른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여러 사항들이 빠져있다. 그러므로 98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다음



이재윤  
중앙대 무역학과 교수

의 사항들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교수회(교수협의회)의 법적 지위 확보 △교원 재임용에 있어서 부당 탈락된 경우 이의제기 및 구제제도 신설 △교원 강제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이의 제기 및 구제제도 신설 △해직된 교원 중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 제기 및 구제제도 신설 △부교수 특히 정교수의 정년 보장 △현재는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50%를 교수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현재는 대학의 기초자산을 교비·강의실·실험실·실형기 등 부동산만을 포함시키나 앞으로 대학의 기초자산을 정함에 있어 학생등록금 포함 필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학만 포함이 되었고 초·중등 교육기관은 제외되었으므로 초·중등교육기관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위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21세기 교육현장에서 여러 구성 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자체 내의 내재적 통제 기능을 잠정하여 현재보다 더욱 책임감 있고 활력있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사설

### 동악내 대화는 어디로 갔는가

재단의 '비민주적 총장선임에 대한 부당함과 나점 전면철회'를 외치는 제주체들의 직접적인 실행행사와 여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지난 3일과 5일의 전면철회와 총장실점거, '합동대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났다.

본교 구성원들의 혼란과 반목은 외부적으로는 본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내부적으로는 학사 일정이나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제반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해결 방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점거 및 농성을 풀고 재단의 결정에 따라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충된 입장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양측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양보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즉각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

그러나 학교당국이나 학내 제주체들은 서로 자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모든 동국인을 안타깝

게 하고 있다. 교수회는 독자적인 총장후보 선출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총학생회도 마찬가지로 '전면철회' 주장 아래 이사장, 총장실을 점거농성 중이다. 그런데 이번 학내소요의 커다란 원인 제공자이며, 사태해결을 주도해야 할 재단과 학교당국은 정작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을 따름이어서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졸업생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내년도에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 동국인의 역량을 한 데 결집시켜야만 하는 이 때에, 사회에 학내분규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내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남자살임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대화는 양보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대화를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단정 중단하고 대학인답게 서로를 예로써 대우하자.

### 2002년 입시요강과 교육환경 개선

99학년도 입시요강이 확정 발표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주캠퍼스는 서울캠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캠은 야간학과와 주간전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주캠은 학부통합여부와 관련한 문제로 다소 마찰이 있었으나 해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교육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남기 위해 학교당국은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도 아울러 남기고 있다.

교육부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전형 방안을 보고할 것을 얼마전 각 대학에 통보했다. 전국 1백86개 대학 중 서울대를 비롯한 75개의 대학이 이미 각 대학 특성에 맞는 자체 모집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나머지 대학들도 10일경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은 오늘 교무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새 입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경주캠은 지난 5일 '21세기 경주캠 입시제도 개선안 설명회'를 마쳤다.

하지만,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2002년 이후를 준비하는 각 주체들의 모습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연구하고 제시했던 사안들과 별로 차이없는 내용들을 준비한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부터라도 각 학과, 단과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공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학교측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리 늦은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는 교육환경 개선을 얼마나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당장 시급한 결정사항인 무시험 전형의 확대문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분야의 제도정비와 변화의 분주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성폭력 방지 학칙제정 움직임

## “대학도 더이상 성역 아니다”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절실

대학내 성폭력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학칙제정으로써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각 학교의 총학생회장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사퇴 입장을 밝히거나 이미 사퇴했다. 이와 같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각 대학의 총여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대학사회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제정' 등 조직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성폭력 학칙제정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경우 총여학생회의 선거공약으로 성폭력 방지위원회의 구성이 거론되었고 곧이어 총장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정식으로 '학내 성폭력예방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부산대의 경우 지난 9월 8일 '성폭력 규제 규정'이 교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학칙으로 제정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담실을 두고 문제 발생시 '성운리회'로 회부하여 처리한다.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 주력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총장 직속기구로 결정했다.

그러나 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진 위원 전무, 성폭력 규정안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작업 미흡,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와 홍보 미비 등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학칙이 제정되었거나 제정 단계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성숙되지 못한 의식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열린 대화창구 마련이 아울러 요청된다.

본교 또한 여성 특별 위원회(이하 여성특위)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꾸러지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특위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에 있었던 대



표자 회의 때 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회의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되면서 함께 사장되었다. 이에 여성특위의 신경화(인문학부 3)양은 "여성 특별 위원회는 학생회 조직으로서도, 학회로서도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예산 인준이 안되고 있어 학내 성폭력 학칙규정을 힘있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더욱이 99학년도 총여학생회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 학칙제정

운동이 더욱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은 단순히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만이 아니다. 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성숙되지 못한 의식구조를 열어 나가는 대화 참여역할을 해야한다. 대학 공동체의 성문화를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한 자치규약을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 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속>

동약로



아쉬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방송소리와 함께 셔틀버스 문이 열린다.

행사장 정문에 도착한 수많은 인파는 ‘새천년의 미소관’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미소관 안에는 백남준씨가 제작한 백팔번뇌라는 작품을 비롯한 기상천외한 영상으로 입장객들의 눈을 사로 잡는다.

“영상실로 가시는 쪽은 오른쪽입니다”는 안내원의 말에 ‘새천년의 미소’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영상을 보기위해 많은 인파는 또다시 그 쪽으로 향한다.

18분 동안 상영된 영상은 새천년의 미소로 전세계의 갈등과 분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지막 장면에 소녀가 문화엑스포 상징물인 수막새를 치켜들며 그 대미의 막을 내린다.

그러나 미소관을 제외한 각 문화관 등은 관람객이 한산했고 기념품관과 음식관에만 사람들이 몰려 든다. 또한 ‘우정의 관’ 옆 상점에서는 영덕대개 삶는 냄새가 진동했고 그 안에서는 술판을 벌인 사람들도 있다.

눈을 한번씩 돌릴때마다 눈에 띄는 것은 기념품관과 문화관을 가장한 상점들뿐이다.

경주의 천년 역사를 세계만방에 떨치겠다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는 모습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엑스포를 보러왔지만 단지 즐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문화행사다운 엑스포의 모습이 부족한 것인지,

행사장에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주머니는 “구경할 곳은 몇군데 밖에 없고 모두 돌길 파는 곳 밖에 없네요. 그리고 세계엑스포인데 외국관광객이 별로 없어요”라며 행사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문화 엑스포이건만 올해 엑스포를 거쳐간 사람들 몇이나 웃고 있는 경주엑스포의 수막새를 다시 보기 위해 찾아올까하는 생각이 엑스포장을 나오는 내내 가시지 않았다.

박양우 기자

본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세미나

“21세기 국민국가의 위상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 국가패러다임 전망한 자리

본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주최로 지난 5일 개교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 세계질서와 국가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김진철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의 인사 및 기조발표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제1부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국민국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주제로 민족통일연구원 황병덕 교수, 세종연구소 정진영 교수가 각각 발표를 했으며 고려대 경제학과 김근 교수, 강원대 경제학과 이병천 교수와 토론을 벌였다.

이어 제2부에서는 ‘21세기 세계질서와

반체제운동’, ‘21세기 세계질서와 한국의 국가경영전략’의 주제로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 본교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참여연대 박인순 사무처장, 본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와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21세기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대의 과학기술 혁명이



21세기 질서와 국민국가의 위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전망한 자리였다.

사회부

기조발표 - 김진철(정치외교학) 원장

21세기 세계질서와 국가패러다임

서론

21세기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본의 논리와 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초래되는 현대의 과학기술혁명이 21세기의 질서와 국민국가의 위상 그리고 21세기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다.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달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잉여가치의 생산에서부터 시작한다.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더 많이 얻으려고 경쟁할 때, 경쟁적으로 생산에 새 기술을 도입한다.

기술체계의 변화는 곧바로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운동형태와 조직형태의 변화로 이어진다. 뿐만아니라 계급투쟁에 의해 초래된 시장수요 구조의 변동 역시 사회적 자본의 운동형태와 사회적 조직형태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모델에서 두 개의 중요한 점이 도출된다.

첫째, 이른바 ‘기술의 중립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즉 기술은 사회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또한 사회구조에 작용한다.

둘째,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술은 자기를 낳아 준 사회구조와 조응하지 않고 차기 사회구조에 연결되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변증법의 논리를 갖고 발전한다.

과학기술 혁명과 21세기 세계질서

과학기술혁명은 세계질서를 하나의 세계화로 통합시키고, 국가간에는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면서 국가간의 경쟁을 격화시킨다. 자본관계의 세계화체제는 자본주

의적 생산관계를 전세계적으로 규율하고 질서를 잡기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든 사회적 영역을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에 포섭하여 국민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초국적 자본은 국민경제의 생산, 교환 및 소비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국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심화된 착취관계를 강화시키고 핵심부의 국민경제와도 충돌하게 된다.

21세기 세계질서와 국민국가의 위상

세계화 전라과정은 국민국가의 구조적 변동을 추동했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 혁명에 의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형성은 근대 국민국가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민국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구성체이며, 이것이 놓여 있는 대내외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그 존재적 속성을 바꾸어 갈 수 밖에 없었다. 즉 국민국가는 세계질서의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바꾸어 간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존재도 세계질서(세계체제)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국가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발전해 왔고, 또한 세계질서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21세기 세계질서는 세계화체제와 국민국가간의 향후 관계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혼돈의 과정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체제 아래서도 자본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며, 계급투쟁의 최종관리기구로 국가는 여전히 유효할 수 밖에 없다. 21세기의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체제와 일국적 차원의 국가간체계가 변증법적으로 시공간적 차원에서 전개·통합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와 자본의 결합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의미할 뿐이다.

21세기 문명의 역사적 의미

21세기의 세계질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신제국주의적 지배 논리이다. 이 세계질서는 주변부 국민국가의 주제성과 정체성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데올로기의 연막없이도 국가정향적인 발전전략을 경계하면서 국가자율성의 상대적 약화를 강조하는 법세계적인 새로운 자본운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국민경제는 해체되고 세계경제의 분석단위는 세계경제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경제는 허구의 실체로만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가라는 하나의 실체와 세계적 수준에서의 노동자라는 하나의 실체가 대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그 경제적 조절능력이 약화되었지만 계급 재생산을 위한 정치적 기구로서 여전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재생산은 여전히 단일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투쟁과 사회운동의 일차적인 공간은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가 곧 정치의 세계화로 귀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론

21세기 세계질서에서도 그 질서의 바탕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이다. 이 세계체제하에서 각종의 사회적 모순과 폐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전인류의 해방은 물론 그 어떤 사회적 개인이나 사회계급도 철저히 해방될 수 없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인간의 활동은 대자연의 내적 균형을 크게 파괴시키는 물론 심각한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여, 그 결과가 때때로 지구의 위기와 재앙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발혜=오인택 기자

기획 - 실업 시리즈

클 씬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업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
2. 대학생실업의 의미와 대책
3. 대학생실업해결을 위해 뛰는 사람들
4. 실업 타개책 전망

적극적·획기적 대책 절실

서울캠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본교생들의 가족사항,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경력, 장래 포부 등이 담긴 전자이력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제자 1인 취업·동문회사 후배 1인 채용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혁배 취업계장은 “교수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 준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학특위 위원장을 만나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위해 힘쓸 터”



대학생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결성된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와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이하 전학특위)의 위원장인 최승현 서강대 총학생회장을 만나 전학특위의 결성배경과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17일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국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고용안정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학특위에서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과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실업대책으로 실직자와 저소득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권 보장,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과 일원화,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들에 대한 의무 고용 확대, 취업연령의 상한제한 철폐 등이다. 또한 실업재원확보 방안으로 누진세 확대와 불로소득에 대한 고용세 신설, 재벌과 비리정치인의 재산 사회환수, 평화군축을 통한 일반회계 예산내의 재원확보 등이 주 내용이다.

-향후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우선 이러한 고용안정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청원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올 하반기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였다면 내년 상반기는 이 투쟁들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가져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99학년도 학생회선거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운동단체들과 연대하면서 대학생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현재 대학생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실업자 수는 1백76만명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수는 4백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가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취업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러한 실업난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학특위가 구성된 계기와 현재까지의 활동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8월말 결성되었다. 전국의 40여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9월 개강투쟁선포식과 9·26민중대회를 치러

유철주 기자

참여! 학생회 선거

11월, 바이호로 선거의 달이지만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요즘 학생들의 참여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학생회 일꾼들은 결코 다른 세계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결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만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는 학생회의 주인으로서 학생회 선거에 적극 참여해볼게 어떻까. 편집자

# 우린 학생회의 주인이다

## 적극적 선거참여 통해 권리·의무 행사해야

“학생회요? 물론 학생들이 만드는 학생의 대중조직이죠!”, “글쎄요, 우리가 직접 뽑긴 하지만 조금은 함께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그 단체는 골수 운동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한 대학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생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98학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내리는 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이 각양각색이다. 그야말로 극과 극의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 조직이 바로 ‘학생회’인 것이다.

때로는 학생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때로는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불신과 이질감으로 지금의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불신과 무관심을 낳았다.

매년 그려왔듯이 다음해의 대표자를 뽑는 11월선거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학생회는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학생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선거라는 것이 진정으로 지난 한해의 평가와 다음 한해의 발전을 논하고 다시 이것을 통해서 혁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동약내의 학생회는 다른 대학도 그러하듯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사회변혁운동의 전위조직인 ‘전투적 학생회’로서 강력한 정치투쟁의 모습을 보여왔고, 김영삼정권 출범 전후의 시기에는 ‘생활, 학문, 투쟁’을 함께 하는 자주적 학생회의 형태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과정들 속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IMF체제는 현실생활에 있

어 학생들이 더욱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예비실업자’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학생들의 커다란 고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IMF가 시작된 이후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특히 ‘대학’이라는 곳은 그 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무너지는 대학’이라고도 표현되는 현 대학의 상황에서 더 이상 ‘학생회’라는 것도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는 비판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미성(국교4) 부총학생회장장은 “학생회라는 것에 항상 고민을 해왔지만 특히 지난 1년과 같은 상황에 맞는 학생회의 모습은 예전과 다른 것이 사실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이상적인 학생회의 상은 마땅하지 않”이라고 말하며 학생대중의 기반위에 서는 학생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흔히들 조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일정한 목적의 달성에 알맞게 체계화하여 그 구성원의 집단적 실천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들의 결사체라고 한다. 학생회라고 하는 조직 또한 인간과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조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학생들의 조직인 학생회는 다시 한번 그들에 의해 재평가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들만이 만들어 가는 ‘자주적 대중조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조직의 주인들은 학생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조직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고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유철주 기자



학생회선거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 통큰 마음으로 시대정신 모색하길

학내 분위기가 어느때보다 어수선하다. 굳이 학내 삼황불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탈냉전시대로 대표되는 90년대는 모두가 무어라 정의하기 힘든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학사회에서도 무엇이 변화에 걸맞는 시대정신인지는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 후배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돌파하고자 하는 지혜들은 보통 학생회 선거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듯 하다. ‘변화’의 목소리가 가장 강조되는 시기가 바로 학생회 선거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과연 어떠한 구호가 제시될지 새삼 기대가 된다.

다만 학생회 선거와 관련해 후배들에게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몇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진지한 시대정신과 변화의 대안을 고민하는 장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 여기에는 나 스스로의 반성적 단상이 들어있다.

먼저 기(氣)가 작거나 가벼워서는 안된다. 기가 가벼우면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고, 배우지 않은 것을 배운 체 한다. 배움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통(變通)’하는 버릇, 다시 말해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능력과 수완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학생회 선거도 ‘선거’이기 때문에 이점을 가장 놓치지 쉽다. 나 자신, 수차례 학생회 선거를 경험하면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 이 부분이다.

순쉽게 승리로 정리하고, 패배로 낙담하는 버릇도 이 때문이다. 교조적인 문구 하나를 원칙으로 오해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과거의 관성에 집착하게 된다. 이전의 관성에 휘말리는 것은,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 ‘무작정’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의지로 호랑이 등에 탔지만, 내달리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호랑이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부터 지워야 한다.

진정 호랑이를 잡으려면 신념이 필요하다.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자신의 경험과 인격을 걸고 그것을 소화하며,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뜻을 세울 때 막연히 알고 있던 것을 과격들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축제’라고 표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념화되지 못한 지식으로 학우들을 교양실복하려고 하면 백중패이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경

청하는 자세와 대화할 줄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승리와 패배의 평가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마음이 크면 만사가 다 통하고, 마음이 작으면 만사가 다 병이 된다. (心大則百皆通, 心小則百物皆病)” 한마디로 통을 크게 가지라는 장자(張子)의 가르침이다. 학생회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결심이 라면, 기왕에 큰사람의 면모로 학우들을 만나야겠다. 뜻이 작으면 쉽게 만족하고, 쉽게 만족하면 발전이 없다.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변화시켜 보겠다는 대담한 호기로 임했으면 한다. 그래야 과거의 것을 과감히 부정할 수 있는 교훈이 만들어진다. 이 점은 굳이 학생회 선거에 열심인 후배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어수선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나 또한 이 가르침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진  
정치학 박사과정 3학기

학생회 일꾼 임상선(국교2) 군을 만나

## “참여속에서 비판해주세요”



98학년 사범대 국어교육과 학생회에서 편집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선(2)군을 만나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현 학생회가 당면한 문제점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부당할 지라도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는 잘못 된 것에 대해 말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과

정에서 발견한 것이 학생회이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힘든점은.  
=뛰니뛰니해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의식은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어려웠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

=학생회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쟁적 흐름이 대학 공동체 문화에 끼친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 예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대평가제하에서는 같은 전공을 들어도 동기끼리는 경쟁자로 인식돼 서로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

-학생회 자체의 반성점은.  
=무엇보다도 관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고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않지만 최근에는 외부의 비판을 많이 받아 안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대동제때의 대학문화자리찾기가 그러했고, 지난 3월날 있었던 전면휴업결의대회 집회가 그러했다. 기존의 엄중한 분위기에서 즐겁고 대중적인 모임으로 바뀌고 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방적 비판이 아닌 참여가 전제된 후의 비판이 되길 바란다. 즉, 다시 말한다면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것 말이다.

박영실 기자

### 책소개

####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우길하 박사의 전문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책.

저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온 전통 문화가 어떤 문법·규칙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변형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으며 그 문화를 관통하는 원리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대담한 주장과 더불어 성실하고 꼼꼼한 고증과 논거의 독창적인 해석이 무기를 더해준다.



소나무, 정가 9천 5백원

#### 정도의 꽃

본고 국어국문과를 졸업한 랑승만 시인의 문단 40년 기념시집.



19년째 병마와 싸워온 저자의 투병생활을 담고 있으며 현재 시인 천상병과의 우정을 담은 시편들도 함께 실려있다. 주로 운회사상과 무속적 세계관이 담긴 시를 써온 랑승만 시인의 작품속에서 생명력과 삶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랑승만 시인의 대표 시선으로는 '어느해 가을의 해일', '억새풀의 땅' 등이 있다.

자료원, 정가 7천 5백원

#### 대학문화의 생성과 탈주

대학문화가 상업성에 의해 잠식당해 가고 경제논리가 대학의 존재를 판가름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청년문화의 생성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를 통해서 장기적 사회고용 불안정의 돌파, 고용창출, 정체성의 복원등을 모색한다. 한려대 이종연 교수와 중앙대 대학원 석사 권경우, 이재원씨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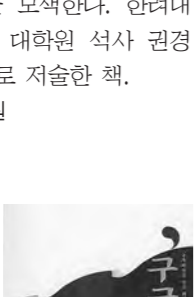
문화과학사, 정가 4천원

#### 구국선언

현재 신문명정적연 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30년간 민주·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장기표씨의 경제해법에 관한 책.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정책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통변형'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으로 보고 새로운 국가경영철학과 가치를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도서출판 신문명, 정가 6천원

### 대시

#### 96년 8월 26일자 동대신문

우리들의 자화상 :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인 만해광장에 소각장이 만들어졌다. 이는 본교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한달 금지조치 때문이나 이것은 우리 동국인 모두의 분리수거에 대한 무관심 탓이다. 사진은 지난 23일 만해광장의 쓰레기더미와 소각장면. <이태훈 기자>

#### 96년 11월 18일자 동대신문

갈레계시판...

#### 96년 11월 25일자 동대신문

내 방이라면...

#### 97년 4월 21일자 동대신문

담배의 무덤...

#### 97년 5월 12일자 동대신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사회는 인간윤리가 흔들리고 있다. 자기가 편한대로 살다보니 어느것이 진짜고,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요지경의 세태라고 볼수 있다.

사람은 항상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본(本)을 받고,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심성을 갖고 자기마음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수련을 통해서만 올바른 양식(良識)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항상 뚜렷한 항상심(恒恒心)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항상심이 있어야 어떠한 스트레스도 이겨내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철학이 생긴다고 본다.

항상심이 있을 때 옳은 것을 보고 주장할 수 있고 지킬 줄 아는 고집이 생긴다고 옛날

성현들은 말했다. 이것을 우리는 택선고집(擇善固執)이라고 한다.

이러한 택선고집이 있어야 올바른 지조(志操)를 갖고 지킬 수 있다. 아침마당이라는 모 방송국 프로그램의 '나의 주장'이란 무대에 어느 60대 장동에 사는 김밥집 할머니 한분이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란 짧은 이야기를 담당하게 소개하였다.

그 할머니의 아버지는 농부집안이었지만 대를 이어갈 남자를 낳기 위해서 새어머니를 여섯명이나 얻었다고 한다. 첫째부인이 여자인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계속 새부인을 맞이하여 여섯번째 새어머니까지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어머니는 첫날밤을 아버지와 같이 윗방에서 지낸 다음 날 아침 자기가 여섯 번째 접이려면 이혼을 하고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 항상심과 택선고집

첫번째 나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나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지만 나는 매일 아침 밥상을 잘 차려 첩과 자고 있는 영감님 방에 들여놓았는데 그것은 영감님의 짓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어른이시고 또한 자기가 죽었을 때 나는 영감님 옆에 묻혀 비석 위에 나의 이름씨가 새겨진다는 소망을 갖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참고 살아왔다. 또한 나의 재사를 지내줄 사람은 내 딸이니 만약 당신이 이혼을 그렇게 원한다면 나의 딸에게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여 새어머니가 자신에게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 하였을 때 자신은 어머니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

### 달하나 천강에

었다는 것이다.

그 후 자기는 어머니의 지조와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김밥장사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뚜렷하게 자손을 키우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과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몽롱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소박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산업정보화시대는 차원 높은 기술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와 지조를 지킬 줄 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대학교에 더욱 필요한 교육일지 모르겠다.



강병수  
한양대  
한의학과 교수

# 우리의 환경문제 의식 몇점인가

## 학내 주체들간의 능동적인 환경개선 움직임 필요

본 지면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학내 주체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근거리 접근법으로 다뤄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학내 환경문제 진단
2. 학내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3. 학내 환경문제 대안찾기

일년동안의 학내 쓰레기처리비에만 3억여원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중 쓰레기의 소각처리비용으로 드는 3천여만원을 제외한 98%의 예산이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매일 학내에서 5톤 가량의 재활용 자원을 무작정 쓰레기통에 버

리고 있으며,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닌 돈을 들여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학내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버려지는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쓰레기 소각로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불안전연소가 발생할 경우나 소각로의 잔여물질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를 상상하면 나타나는 피해는 물적가치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제 한발 늦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학내 환경에 대한 주체들간의 인식을 환기하고 문제점에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공유하는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시급한 소각로문제를 생각해 보면 뽑어져 나오는 악취와 앞서 언급한 문제를 고려할 때 소각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오

래된 소각로의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 내지는 수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측의 재정적인 뒷받침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내에 병, 캔, 일반쓰레기 3가지로 분류돼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고려해 보면 교육장에서 많이 나오는 종이류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무작정 버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부적절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종이와 일반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4종류로 수거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학생회 한 간부는 "분리수거가 효율적이지 못할 때에는 과나 학생회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해 쓰레기를 버리게끔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강제 의 실행 여부도 검토해야 함을 제기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잔반처리기를 통해 사료제조를 하거나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장에 직접 보내는 등 실질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로 본교 경주 캠퍼스 기숙사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잔반 처리기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전연사료로 제조, 일반 가축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좋은 모범 사례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학생·교직원식당에는 외부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또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약품, 폐기물, 실험기구 등은 철저한 분리수거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독성물질, 가연성 물질 등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관재와 이상기 계장은 "근래에 들어와 정부차원에서의 환경요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곧 개정될 환경법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학교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해야 될 것을 역설했다.

또한, 학내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회 차원의 환경관련기구 제정이다.

현재 환경관련기구는 경주캠프 총학생회 내에 있는 환경국이 유일하며, 그나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줍기 캠페인마저 매년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재정지원에 중요한 취지가 담겨져 있더라도 주체들 스스로가 학내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학내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 삶 자체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낱알의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기에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그 피해는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환경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면 이제는 학내 주체를 스스로가 분리수거, 주위 휴지줍기 등의 작은실천 하나에서부터 학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한 주체들간의 공동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희정 기자

#### 제2회 서울 국제 노동영화제를 찾아서

## 영화를 통해 노동계의 현실을 진단해보는 기회

제2회 서울 국제 노동영화제가 89년부터 노동운동의 한 형태로 창작 활동을 해온 '노동자 뉴스 제작단'과 각 기업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영화모임 연대를 준비해온 '전국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준비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열린다.

'노동 미디어 주간'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97'의 부대행사 차원에서 열렸던 작년과는 달리 독자적인 준비와 진행이 가능해 졌다는 특징을 갖는데 노동자뉴스제작단의 김명준대표는 "그간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제기했던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활

용될 것"이라고 행사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한편 노동자뉴스제작단은 이번 영화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 노동운동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성,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성과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한다는 1회의 결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2회 국제노동영화제는 영화제 자체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매김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부대행사차원에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독자적인 행사로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영화 상영 중간 중간에는 일본 국철 노동자를 초청한 영화제 관련 워크샵이 준비되었는데 워크샵에서는 노동자 영상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진행 담당자인 황정일씨는 "현재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영화제가 졸업 후 노동자로서 사회에 나아가 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자세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영화제에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쏟아주기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최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재도중 만난 행사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는 규모면에서 예년의



서울국제노동미디어97과 비교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준비단은 행사의 의의에서 밝혔듯이 거대한 행사가 가져오는 일시적인 의식전환보다는 영화라는 하나의 대중적 매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기에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영화제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대학생들이 영화제 참여를 통해 노동계 현실을 느껴보기를 기대해 본다. <윤>



◇우리들의 자화상...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인 만해광장에 소각장이 만들어졌다. 이는 본교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한달 금지조치 때문이나 이것은 우리 동국인 모두의 분리수거에 대한 무관심 탓이다. 사진은 지난 23일 만해광장의 쓰레기더미와 소각장면. <이태훈 기자>

# 영상매체비평

-영화편  
트루먼쇼

“관음증적 본능과 매스미디어의 위력이 개인을 얼마나 파괴할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 세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 또 한 세기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이어주는 것은 영상 정보화사회의

거대한 미디어 제국이다. 과연 새로운 세기에서도 우리의 일상적 삶은 미디어 제국에 충실하게 복속하는 소모품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한 테크놀로지의 비극적 종말을 목격하게 될 것인가. '98의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상상공간에서 창조된 괴물이지만 또 하나의 전체주의 사회로 끌고 가는 영상정보매체의 위협을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영상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정보를 생명수처럼 갈구하게 된다. 그러나 수용자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새롭게 변형되거나 창조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정보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

파편적이고 때로는 상호 모순적이까 지한 이 정보만으로 조립된 삶은, 마더스의 황금의 손이 아니라, 보이는 쇠붙이 마다 잡아 먹어야 하는 불가사의의 무서운 탐욕에 다름아니다. 피터 위어 감독의 '트루먼 쇼'는, 타인의 삶을 엿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관음증적 본능과 영상 매스미디어 제국의 가공할만한 위력이 개인의 자아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가를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 세계는 하나의 어항이고, 나의 삶은 유리고기처럼 투명하게 노출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영화에서 짐 캐리의 변신은 높이 사워야 한다. 자신이 구축한 연기의 영역을 벗

어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이다. 자칫 발을 잘못 딛으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생존을 제로의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연기적 변신도 훌륭하였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드는 그의 모험정신 자체가 더 소중한 것이다. 블랙 코메디의 걸작 근처에까지 갔다가 주저앉았던 '케이블 가이'의 안타까운 시도가 '트루먼 쇼'에서는 훌륭하게 열매를 맺었다. 주제를 심층적으로 더 밀어붙이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인디 영화가 아닌, 거대 상업 자본이 투입되고 다수의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주류 할리우드 영화공장에서, '트루먼 쇼'는 최고의 생선품 목록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트루먼이 살았던 마을 씨해튼은 넓은 의미에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닐까? 지구 밖에서, 마치 TV의 쇼 프로그램 '트루먼 쇼'의 연출자가 트루먼을 바라보듯이, 우리들의 삶을 낱알이 지켜보고 있는 그,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트루먼 쇼'를 보는 관객들, 영화 속에서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받고 있는 '트루먼 쇼'의 시청자들과 동일시 되는 그들 역시,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또 한사람의 트루먼이다.   
하재봉  
영화평론가

## 남산골 한옥마을

# 낮선 도시에서 전통의 향기가 난다

##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아

### 서울천년 타임캡슐



서울 정도 6백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한옥마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94년의 시민생활과 서울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백점을 선정해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전하는

사업으로 2394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타임캡슐 주위의 광장은 운석에 의한 분화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간의 영속성을 의미한다. 광장의 중앙에는 지름 7.5미터의 화강암 판석이 있는데, 이곳의 지하 15미터 지점에 보신각종

### 전통한옥촌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5채를 복원해 만든 한옥마을. 이 한옥에는 도편수 이승엽가옥,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 해풍 부원군 윤택엽택 재실,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이 있다. 집의 규모에서부터 시작해 살았던 사람의 신분에 맞는 가구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도편수 이승엽가옥의 경우, 흥선 대원군에 의하여 경복궁이 증건될 때 목수의 우두머리였던 이승엽이 1860년대 지은 집으로, 현재 이곳은 전통 한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순정효황후 윤씨

### 정자



남산골 한옥마을 서쪽은 계곡과 정자로 꾸며졌다.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정자는 육각의 지붕을 가진 덕류정으로 기둥마다 옛 선인의 시구절이 적혀 있으며, 구름무늬 난간 아래는 작은 연못이 있다.

친가는 순종의 비인 순정효황후 윤씨가 13살 나이로 동국계비에 책봉될 때까지 살던 집으로 대청이나 지붕등을 보면 최상층의 저택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오위장 김춘영가옥은 전체적으로 다른 곳과는 달리 서민주택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옥촌은 전통 한옥들을 복원해 일반인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무수히 많은 고층건물 사이에 한국의 전통가옥이 용감하게(?) 자리잡고 있다. 3호선 충무로역에서 내려 중앙대 부속병원 뒤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이 바로 그것이다. 남산의 정기와 고유문화의 멋을 되살리고자 '90년 남산 재 모습 바꾸기' 일환으로 건립된 이곳 한옥마을은 지난 4월 문을 열어 현재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2천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 '도시 한가운데 자리잡은 전통마을'에서 여유로움을 찾고 있는 듯하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꾸며진 한옥마을에 들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통 한옥촌이다. 장작을 넣은 아궁이나, 물건을 일 때 쓰는 또리, 체 등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한옥촌은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한 신기함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옥촌을 관리하고 있는 김봉학씨는 "나도 관리인이 아니라 마당쇠지"라며 전통과 하나되려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옥촌 내에는 전통공예관과 수정관, 강정, 한과 등을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전통 찻집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투호나 널뛰기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한옥마을의 끝쪽으로는 서울정도 6백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의 도시모습과 시민생활, 사회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백점을 묻어놓은 타임캡슐이 있어 역사의 장구함을 한껏 더해준다.

### 인터뷰

“전통을 새롭게 뿌리내리는 공간만들터”

자연과 전통문화의 보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남산골 한옥 마을의 소장 류관현 씨를 만나 남산골 한옥 마을이 설립 의의와 운영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남산골 한옥마을 설립계획은.   
-있혀져가는 전통문화의 뿌리를 되찾고 그 명맥을 이어나가자 남산골 한옥 마을을 설립했다. 서구의 가치들이 많이 유입되고 점차 생활을 지배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옥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수와 외국인 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는 날씨가 쌀쌀해서 관광객 수가



많은 줄었으나 하루 평균 2천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개장 초기와 여름에는 5천명 가량이 방문하기도 했다. 점점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전체 방문객의 30%정도가 외국인일 때도 있다.   
-한옥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대부분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고 하고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화려한 고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박한 생활상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각종 수목들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계곡물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남산골 한옥 마을의 한옥 복원 공간은 9시에 개장해서 5시에 폐장하고 있다. 봄·여름에는 6시에 폐장한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한옥이 복원된 곳에서 다도나 우리 옷 바로 입기, 친·인척 호칭 제대로 알기 등의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 수공예 배우기 등의 강좌도 열고 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전수자들의 공연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한옥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전통이 사라져 간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는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려내고 보급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더불어 우리 모두 점차 의면당하고 있는 전통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산골 한옥 마을이 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친숙해져서 전통을 새롭게 뿌리내리게 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최은진 기자

## 자아인식

학교 안에서   
아리랑 98 가을정기공연   
중앙노래매 아리랑이 98가을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불식시키고 거기에서 화합을 이끌어 낸다는 주제의 이번 정기 공연은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일 오후 6시 소강당에서, 문의 260-3785   
라이브 콘서트   
음악동아리 세븐 글래스가 21회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한다. '잡시동인의 공백기간이 저희에게 도약의 밑바침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라는 회상 박력 현군의 말처럼 이번 콘서트에서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본다.   
오는 12일 오후 5시 30분 학생회관3층 음악실에서   
학교 밖에서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상으로 자리잡은 이중섭 미술상의 아홉번째 수상자인 오원배 본교 미술학과 교수의 수상기념전이 조선일보사의 주최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일 작품들은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큰 주제 아래 현대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문제와 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약 20여점의 대작들이 전시될 것이라고.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문의 (02)724-6317   
박은선전   
본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화가 박은선씨의 전시회가 열린다. 박은선씨의 작품들은 '특색의 모상'은 회화적 유희로 격상시키는데 의미가 있으며, 탈현대적 세계, 체계로서 설명되거나 결정론적으로 참인세계, 상식으로서의 세계에서 특색을 도입함으로써 그것들을 허구와 실제로 분극화하고 이를 회화적으로 즐길수 있게 한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 문의 (02)734-1020

## 메아리

## 수호자

▲1924년 레닌의 사망으로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공포·강권정치로 공산당 지도자, 인텔리엔차, 농민 등 엄청난 인원을 숙청했다. 그러면서 독재자로서의 자신의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냉전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주위의 눈, 코, 입, 귀를 모두 막아 버린 채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조선일보가 부산스럽다. 국가자문위에

있는 한 진보인사의 사상에 대해 '의심스럽다'라고 결론지은 뒤, 연일 그 인사에 대한 험담은 물론 이전 학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연신 공격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보수인사들을 선동해 그를 매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놀라운 것은 조선일보가 새삼 용공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고 더욱 열을 올리는 체제의 수호자(?)들이

학계·일반 할 것 없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혹 아니면 백'식의 흑백논리가 위험한 것은 이미 과거 50년대 이전부터 인식해왔다. 첨예한 대립에 의하거나 회색분자로 낙인 찍혀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저명인사들, 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이나 가족들도 얼마든지 많다. 덧붙여 흑백논리가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귀를 막아 버린 채

아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아집적인 수호자가 아니다. '나 아니면 안돼' 식의 독단·독선적인 폭력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가. 이번 같은 일도 그 인사가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글귀 하나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점과 그 논문에 대한 전체적 문맥이나 수정작업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피뽕이한다는 점이다.

역사라는 커다란 물결기는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 세력에 의해 주도돼 흘러가거나 좌지우지 되지도 않는다. 수많은 의견과 다양한 사고가 어우러져 공명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귀결되는 것이다. 더 이상은 어느 한 집단의 아집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과 시대착오적 발상은 지양되어야 하겠다.   
최정식 편집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나, 고3 때



△시험 때문에 답답하다고 친구들과 학교 앞 바닷가에 가서 큰 소리로 한 풀고... 근데 이젠 그리고 싶지만 바닷가가 없다 △공부 열심히 했지. 수능에 안 나오는 것들만 △그래! 나 고3때 점점 뿔테 안경끼고 월남치마 입고 부시시한 머리 필러이며 교정 누웠었다!! 지금은?? △늘씬서도 맘편하게 못놓고 자면서도 맘 졸이면서 자지. △무지하게 바쁜 것처럼(부모님께) 무지하게 피곤한 것처럼(선생님께) 그러면서 제일 많이 마시고 제일 많이 놀고... 그랬지 △별보고 학교 갔다, 별보고 달도 보며 왔다. 고등학교 때는 구속이 싫었는데 지금은 왜 그리 그리우지. △그뻐 수업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찻찻 △쉬는시간 10분도 쪼개 썼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칠 것 같았다. 슬막혀서 말이야. △정말 공부열심히 했는데. △대학이란 곳이 이렇게 높고(?) 추울줄은 몰랐다. △나... 고3으로 돌아가고 싶다. △난 점점고사다.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니까 불고기 냄새만 가득하고 내건 하나도 안 남겨서 심통부리고 울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구워주려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던군. 쿠쿠! △첫사랑... 성적은 많이 떨어졌지만 아름다웠던 시절. △당연히 재수할 거라 생각했다-Sun해- △그때는 내가 대학가서 이렇게 망가질줄 몰랐다. 슬프다.

수필

가을 나그네

나는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훌쩍 집 을 나서 산천을 방랑하는 버릇이 있다. 이것이 계절병인지 마음병인지 나도 모른다. 봄·여름·가을·겨울은 리드미컬 하게 돌고 돈다. 나는 이것을 '리듬의 계절'이라고 명명해 본다. 지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레 (a spring wheel)가 아니든가, 이 거대한 물레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사시절후를 생성 반복하면서 영겁을 자아낸다. 이 과정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있는 것들은 이러한 계절의 리듬을 타고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 우리를 인간도 자연의 한 존재이며 자연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늦가을 단풍이 붉게 탈 무렵이면 나는 슬그머니 집을 나선다. 대개의 경우 심산 유곡의 고요한 산천을 찾아 길을 나선다. 올해도 11월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나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자리잡고 꿈틀거리 는 방랑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나의 계절적·체질적 욕구 이며 특징이다. 마치 인간이 지닌 원초적

욕구(libido)인 것처럼.

나는 여장을 꾸러 황급히 집을 나선다. 여정이래야 등산복에다 등산용 배낭과 등산화 정도가 고작이다. 여기에는 워즈워스의 낡은 시집 한 권이면 그만이다. 내 사색과 정서의 빈 공간을 채워 줄 그 무엇을 찾아 길을 나선다. 여행길에 오른다.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긴 여정이 아니던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담리의 산수풍광은 그런대로 수준급이다. 이곳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길게 누워 교차하는 산간 오지다. 이때쯤이면 애담리 일대의 들관과 산천에는 당귀를 비롯한 각종의 약초가 이쁨모를 무수한 자연초와 더불어 함께 어울려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면서, 그 신비하고 상큼한 내용이 지나가는 가을 나그네의 후각을 진하게 자극한다. 이곳 애담리의 가을이 어느 초목에서 기거한다든 C노인은 목직 한 쇠망치를 들고 나와 가을가 바위를 치니 그 밑에서 한 가롭게 잠자던 산천어가 기절초풍하여 하얀 배를 물위에 드러낸다. 노인은 얼른 뜰썩썩 고기를 쫓어모아 그 자리에서 배를 따서 그냥 씹어 삼킨다. 노인의 두 눈은 마치 심산 유곡에서 포효하는 맹수의 그 것처럼 예리한 광채가 번쩍인다. 일찍이 에릭 호퍼는 '자연과 도시'라는 글에서 "자연은 고양된 사상과 정서

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좋은 신문이란 독자의 눈을 끌 줄 알아야 하며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어렵게도 11월 2일자 신문은 독자의 눈을 이끄는 정도에만 그치고 만다. "서울캠퍼스 전면 휴업", 동국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단 한문장에 이끌려 신문을 집어 들 시간이다. "왜 휴업을 하게 되었을까", "총장선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기사는 단순한 투표 결과의 나열에 그치고 만다. 물론 한낱 인내심을 가지고 신문을 훑어본다면 총장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장선거가 기습적인 재단의 총장 임명으로 저지되었다(임호일 교수 인터뷰)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이렇듯 들쭉날쭉한 기사들에 몸을 붓고 소금을 쳐가며 간을 맞추려고 애를 썼을까? 보다 간결하게 다듬어진 동대신문을 기대한다. 박선영 (공과대 건축토목공학부)

'캠퍼스 영상가요' 촬영을 보고 상황 외면한 포장된 웃음 학교를 위한 고민 아쉬워

요즈음 내가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바로 KBS 2TV의 '캠퍼스 영상가요'이다. 재기 발랄한 대학생들이 나와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신선하고 풋풋하다. 그러나 우리 학교 안으로 시선을 돌리어 생각해 봤으면 한다. 지난 11월 4일, 우리 학교에서도 '캠퍼스 영상가요'의 녹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동국인이 그랬듯듯이 나 또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녹화현장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녹화 중에도 녹화가 끝난 뒤에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석연치 않은 아쉬움이 몇 가지 남아 있었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의 동악은 무척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위하여 진정한 젊어서 고민하는 모습들은 간데 없고 그저 웃고 즐기는 모습들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군다나 지금의 동악의 모습에 비추어 보건데, 동악내 각 건물들마다 걸려있는 검은색의 "근조 민주주의"란 플래카드와 형형색색으로 "캠퍼스 영상가요"라고 적혀 있던 무대 뒷 배경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였다. 학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된 웃음만으로 우리의 동국을 일리는 것은 진정한 홍보가 아닐 것이다.



동악광장

목격글

△동국대 동급최강. 효익이 생일이 11일 이랍니다. 정말정말 축하해! -메롱 △은방골에 있는 경상학부 회계학 전공 96학번 귀엽둥이 내 동생 경원이 생일! 축하해 경원아. -목먹골 회계 96학번 언니 △효섭이 오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 멋진 11월 보내세요. -중문98 △승택이의 약혼을 축하합니다. -32 △성민아 생일 축하해(11월 15일). -전자 92일동 △병화와 윤정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 한다. -영이가 △승택이의 약혼을 축하합니다. -인수 △좋아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친구로 지내라고 했다. 아~ 슬프다! -Box Dragon △정면후입 성사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총장실과 이사장실에서 매일 밤을 새

학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한 연후에 진실된 웃음으로 학교를 홍보했더라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폐물이에게, 그것도 대학인에게 있어 웃음과 낭만, 그로 인한 풋풋함은 물론 큰 자랑거리로 재산일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의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젊음이라는 고민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금엽 (사과대 사회과학계열)

동대신문을 읽고 간결한 설명·납득 부족 독자의 눈길 끄는데 그쳐

커다란 글씨가 있다. 마음은 급한데 영 간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 글술 가득 간장을 부었다. 그랬더니 웬걸, 이번엔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다시 찬물 두 사발을 그득그득 부었다. 이번엔 또 영 맹탕이다... 도무지 간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 11월 2일자 동대신문

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좋은 신문이란 독자의 눈을 끌 줄 알아야 하며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어렵게도 11월 2일자 신문은 독자의 눈을 이끄는 정도에만 그치고 만다. "서울캠퍼스 전면 휴업", 동국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단 한문장에 이끌려 신문을 집어 들 시간이다. "왜 휴업을 하게 되었을까", "총장선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기사는 단순한 투표 결과의 나열에 그치고 만다. 물론 한낱 인내심을 가지고 신문을 훑어본다면 총장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장선거가 기습적인 재단의 총장 임명으로 저지되었다(임호일 교수 인터뷰)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이렇듯 들쭉날쭉한 기사들에 몸을 붓고 소금을 쳐가며 간을 맞추려고 애를 썼을까? 보다 간결하게 다듬어진 동대신문을 기대한다. 박선영 (공과대 건축토목공학부)



알림: 소나기와 동악행정의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동국관-식당입구, 5층 휴게실 문화관-3층 화장실 입구 해화관-2층 로비 명진관-2층 기동 도서관-3층 휴게실 학림관-1층입구 학생회관-1층공중전화 BOX 옆 경주캠퍼스 도서관-3층 원효관-중정 2층 진흥관-1층 학생회관-2층, 휴게실

다량관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1300) 카레라이스(1200) 돈가스(2500) 집채밥(2000) 화 풋고추돈육찌개(1200) 탕수육백반(1500) 할박(3000) 녹지볶음(2500) 수 옥개장(1200) 소고기볶음밥(1300) 비후까스(3000) 불고기비빔밥(3000) 목 참치우거지국(1200) 비후까스(1500) 생선까스(2500) 쌀볶음밥(2000) 금 짬뽕국밥(1300) 비빔밥(1300) 정식(3000) 체육볶음(25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황태뚝배기(4000) 간장계장백반(3200) 계살간짜기(1500) 두부김치(1300) 화 갈비탕(3200) 오므라이스(3000) 설렁탕(1300) 히어리라이스(1200) 수 배추숙내국(2800) 생선까스(3000) 목 떡갈비찜(1500) 어묵국(1300) 금 소고기전골(3000) 양상피(3400) 집채밥(1300) 썬어찌개(1300) 소머리국밥(3000) 갈치구이백반(3200) 소고기야채밥(1300) 돈육찌개(1300) (단위:원)

△김순, 예선, 주현, 선영, 정선 사랑한다 친구들아. -SEA △11일부터 14일까지 신방과 학술제가 있습니다. △마담 MT' 잘 갔다오시디. 이월도 잘하고 더 멋진 마담이 되기를. -양.이.송

은방글

△불교학과 4학년 문종수님 대학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광범 속에서 비범을 감추십시오. -사문 상태 올림 △수미·선무 수고과 가장 귀여운 커플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되길... -수학교육과 98 △옥정님! 생일 축하 한다!! 광개토 회장 자리는 그만 후배들에게 물려줘라 너무 이제 25살인데 은퇴해이지?! -! △허재일! 군입대를 축하한다. 부디 남자가 되어 돌아오길... -전·과9

동문칼럼: 10여년의 회상. 김부환 (한의 86졸, 우리들 한의원 원장). 이제 가을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몸을 추스르게 하며 출근하는 길옆의 논에는 농부들의 타작하는 손길이 바쁘다. 학교를 졸업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몇 주전에 처자식을 데리고 학교에 놀러가 보니 학교도 제법 번듯해졌고 음식점과 가게도 많이 늘었다. 세상이 바뀐 만큼 나도 젊던 얼굴은 어디가고 벌써 중년기가 난다. 입학하던 해 박정희 정권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민주화의 바람은 학교를 뒤숭숭하게 하였으며, 도서관의 불은 그곳에 비치된 장서를 의미하듯 밤늦게 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자 학교도 그러저러 모습을 갖춰 본관과 도서관, 한의학관, 기숙사 등이 들어서고, 학생들도 졸업후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고시의 큰 꿈을 꾸는 사람부터 사립대학교의 지방분교를 나와 무엇을 할 것이냐는 회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 그래도 나는 한의대에 진학한 덕에 졸업한 후의 걱정은 하지 않았고,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 덕에 장학금을 보조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다. 정작 어려움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한의사로서 평생 사는 동안 죽어가는 몇 사람 정도는 살리고 싶은 꿈을 피기에는 세상이 그리 쉽지 않았다. 개업한 첫 해에 세무서에서 누군가 조사할 것이 있다고 왔는데, 알고보니 용돈이라도 얻어 가려고 하는 것이라, 불투에 얼마의 돈을 넣어 다음날 견내주니 고맙다고 하고 간 뒤 나는 속으로 울었다. 그 돈이 아깝다거나 그 공무원이 미워서가 아니었다. 나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무엇인가가 짓밟힌 느낌으로 마치 처녀가 억지로 순결을 잃어 버린 것처럼 나의 입과 손은 더러움이 배어 나오는 듯 하였다. 부정하게 살지 않기로 하여 학교생활 6년동안 무식하게 끈질 한 번 하지 않고 지켜온 나의 정직적 자부심을 사회라는 곳은 무참하고도 간단하게 짓밟아 버렸다. 부정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 학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졸업하고도 10여년간 계속 방송대 중국어과 대학원을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가졌으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도 대가들의 결음마 수준도 되지 못하며, 아는 것도 태부족하니, 배움에 있어서도 이쁨이 없는 것이다. 이제 세월갈에 따라 학교다닐 때 공부한 것, 교수님이 가르친 것 잊어 버리고, 여기 저기서 배운 것도 남아 있지 못하는구나 탄식이 절로 나온다.한의예과 시절 본관 열람실에 '삼구보리 하와생중'이라고 적은 현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곳이 작아 위로 보리를 구할 재주도 없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할 힘도 없으니, 그저 한의사로 학문연구하며 아픈 사람이나 잘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이론 것은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고친 사람도 없다. 그래도 가을 들관에서 바빠 움직이는 농부의 손과 같이 아직까지 남은 시간 열심히 꿈을 따라 살다가 달빛과 함께 침터로 돌아가자이.

△화랑선문부 영임이(진이꺼)랑 철수(정근) 랑 영배(정소부장)! 모두 생일 축하해! -화랑 사람들 △경민이형! 편집장 되신 것 축하드려요 -태린19기 수습 일동 △결혼을 축하합니다. 89 서상고 선배님 우리의 「영원한 찰레스」 7일 결혼축하드립니다. -Newsweek △우유형, 휴가 나오시기 전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알죠? △화학과 및 자연과학부 학우들 학술제 공개 실험 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우준 △DKBS 보도부 항상 취재 하느라 수고했고 모두 모두 사랑해! -철보 △삼형이가 머리 빡빡 밀고 공부 시작 하겠네요 암튼 열심히 하구 좋은 결과 바랄게 지금 저기서 머리밀고 있대요! 우가까! -YW95